

# 최종결과 보고서

## 1. 사업명 : 더불어 사는 생태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 2. 사업목적 및 의의

### ■ 더불어 사는 삶의 공동체 실현

현재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사업 및 방폐장 건설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때로 삶의 공동체마저 뒤 흔들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환경교육은 단순히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자연과 인간이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치관을 배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 지속적인 생태교육 지도자의 발굴, 육성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교육을 담당할 지도자의 부족으로 효과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교육방식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생태교육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자 한다.

특히, 본 단체는 2000년 5월 창립이후 지속적으로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일선교사, 주부, 대학생 등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천, 들꽃, 갯벌, 철새 등 다양한 주제로 생태교육 지도자를 육성해왔다.

### ■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 환경의식의 고취 ⇒ 생활 속 환경실천 유도

생태교육 지도자의 육성은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짜임새 있는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일선학교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

에서 일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교육을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이후 체험교육의 양적,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험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환경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삶의 방식은 함께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다. 주부와 일선교사, 대학생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환경교육의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는 일은 단기적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꾀할 뿐만 아니라, 보다 멀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3. 사업개요**

- 1) 제 목 : 더불어 사는 생태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 2) 일 시 : 2004년 4월 1일 ~ 2005년 3월 31일
- 3) 장 소 : 시민행동21 교육실 외 전주수목원, 기린봉 등
- 4) 대 상 : 교사, 주부, 대학생 등 40 여명.
- 5) 사업추진기관 :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

**4. 참가자 명단**

성명	주 소	연락처
김춘미		
김현숙		
노장환		
송창훈		
송혜선		
신명숙		
이전경		
임승재		
조경희		
조정운		
손지숙		
조희숙		
최현규		
최현숙		

피영집		
허지영		
반지원		
김영옥		
신진철		
김진선		
이대희		
송숙경		
박정철		
박은선		
이중기		
오애숙		
조묘행		
이운재		
오충현		
심상결		
신진탁		
임동연		
유정아		
이윤재		
이정란		
황혜진		
장정숙		
황소희		
최미선		
류제협		
정정희		
김경숙		

## 5. 사업내용

<b>세 부 활동명</b>	습지에 대한 기본 이해				
<b>교육일시</b>	4월 12일	<b>교육장소</b>	시민행동21	<b>교육인원</b>	10명
<b>강사</b>	성명	신진철		<b>연락처</b>	284-6161
	약력	전북대 환경대학원 석사 시민행동21 환경센터 소장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에 대한 정의</li> <li>- 습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서식 환경 제공</li> <li>: 생산력의 보고</li> <li>: 수문학 및 수리학적 기능</li> <li>: 기후조절 기능</li> <li>: 수질오염 물질 제거능</li> <li>: 경제적 가치</li> <li>: 경관적 가치</li> </ul> </li> <li>- 습지의 분류</li> </ul>				
<b>준비물</b>	프리젠테이션		<b>참고자료</b>	습지학 원론- 한국의 늪	
<b>평가</b>	- 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지의 정의, 역할, 분류등 )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b>세 부 활동명</b>	하천생태체험교육 시연				
<b>교육일시</b>	4월 21일	<b>교육장소</b>	전주천변(한벽루)	<b>교육인원</b>	12명
<b>강사</b>	<b>성명</b>	박 종 영		<b>연락처</b>	270-3354
	<b>약력</b>	전북대학교 생물학부 교수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li> <li>- 하천과 인간의 활동</li> <li>- 수질 측정을 통한 교육방법 : 수질 측정기구로 학생들과 함께 물의 급수를 측정</li> <li>- 채집활동을 통한 교육방법 : 교육 참가자들과 함께 물고기, 수서곤충등을 채집하여 같이 알아보면서 물고기에 대한 교육 방법</li> <li>- 교육 참가자 돌아가면서 교육 시연</li> </ul>				
<b>준비물</b>	수질측정기구, 물고기 채집 도구, 샌달, 교재등		<b>참고자료</b>	하천으로 떠나는 생태기행 한국의 민물고기 춤추는 물고기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과 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되었다</li> <li>- 직접 참가자들 앞에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li> </ul>				

<b>세 부 활동명</b>	습지관련 비디오 교육				
<b>교육일시</b>	5월 10일	<b>교육장소</b>	덕진청소년 문화의 집	<b>교육인원</b>	10명
<b>강사</b>	<b>성명</b>	나 연 희	<b>연락처</b>	273-7997	
	<b>약력</b>	덕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교육 담당 하천 연구회 여울 회원			
<b>교육내용</b>	<p>- 100일간의 기록, 둔천동 습지의 세계(2002년 9월 25일 방영)</p> <p>1. 서울 도심의 하나뿐인 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강동구 둔촌동 습지는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자연습지다. 사유지인 이곳이 개발 되지 않고 습지로 남게 된 것은 아파트주민들이 '습지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조직을 구성하여 노력한 결과이다.그 결과 서울시는 이 습지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li> </ul> <p>- 닐 무어스가 본 한국의 습지(2001년 5월 23일 방영) : 세계는 지금 한국의 습지에 주목하고 있다.</p> <p>1. 한국습지를 사랑하는 환경운동가 닐 무어스 (Nial Moor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운동가이자 조류 전문가 닐 무어스.</li> <li>▶ 1990년 일본에서 활동하던 중, 한국 습지의 규모와 종 다양성에 매료되었다.그는 99년 람사회의에서 최초의 한국습지 전반에 관한'한국습지에 관한 생태 보고서'를 제출,국제사회에 한국습지의 가치를 알렸다.올 1월, 제작진은 닐 무어스가 속한 '습지와 새들의 친구'팀과 동행,한 달간 낙동강 하구를 시작으로 강화도까지 강행군으로 동행취재,우리 습지의 생명력을 카메라에 담는데 성공했다.</li> </ul>				
<b>준비물</b>		<b>참고자료</b>	kbs 환경스페셜		
<b>평가</b>	- 습지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비디오 시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습지에 이해를 했고, 더불어 한국의 아름다운, 보전해야할 습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b>세 부 활동명</b>	습지 생태 교육(오송제, 오공제)				
<b>교육일시</b>	5월 29일	<b>교육장소</b>	오송제,오공제	<b>교육인원</b>	30명
<b>강사</b>	<b>성명</b>	김익수, 소재현		<b>연락처</b>	
	<b>약력</b>	김익수(전북대 생물학부 교수) 소재현(전주수목원 연구원)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속 습지의 역할과 기능, 보전해야 되는 이유</li> <li style="padding-left: 20px;">: 도심 속에 있는 작은 소류지(습지)들은 개발계획시 제일 먼저 매립이 되고 없어지는 곳인데 이곳들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와 도심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li> <li>-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 및 조류에 대한 공부</li> <li>-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수생식물에 대한 공부</li> </ul>				
<b>준비물</b>				<b>참고자료</b>	습지학 원론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습지의 역할과 기능, 어류, 조류, 수생식물에 대해 현장교육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li> <li>- 전주시내 일원에 우리 근처에 있는 습지를 방문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도심속 습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li> </ul>				

<b>세 부 활동명</b>	전주지역 습지현황 교육			
<b>교육일시</b>	5월 31일	<b>교육장소</b>	시민행동21	<b>교육인원</b> 10명
<b>강사</b>	<b>성명</b>	장영균	<b>연락처</b>	281-2959
	<b>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의제21 기획홍보팀장</li> <li>- 시민행동21 하천연구회 여울 회장</li> </ul>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시내 소류지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약 64개의 소류지가 있음.</li> <li>: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의 큰 소류지가 있음</li> </ul> </li> <li>- 현재 소류지들의 상태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이 농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농업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은 방치되어 있고,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음</li> <li>: 각 구청에서 1인이 1년정도에 한번씩 현황파악 하고 있음</li> </ul> </li> <li>- 전주시내 소류지들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 70년대 도시가 팽창되고, 개발되면서 제일 먼저 개발되고 매립된 곳들이 농업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소류지들이었음</li> </ul> </li> <li>- 전주 소류지들의 중요성</li> </ul>			
<b>준비물</b>	교육 발제문, 소류지 기본 실태조사서	<b>참고자료</b>	전주시내 소류지 현황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시 일원의 소류지의 구체적인 현황, 소류지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왜 도심의 소류지가 중요하고 보전해야 하는지 인식하게됨</li> </ul>			



<b>세 부 활동명</b>	습지 생태 교육				
<b>교육일시</b>	6월 14일	<b>교육장소</b>	평화동 지시제	<b>교육인원</b>	13명
<b>강사</b>	<b>성명</b>	신진철		<b>연락처</b>	284-6161
	<b>약력</b>	전북대학교 석사 시민행동21 환경센터 소장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소류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생태교육에 대해서 교육</li> <li style="padding-left: 20px;">: 습지의 기본이해(정의, 분류, 기능)</li> <li style="padding-left: 20px;">: 도심 속 습지의 역할 및 중요성</li> <li style="padding-left: 20px;">: 습지에 서식하는 동물(어류, 조류, 양서류), 수생식물에 대한 공부</li> <li style="padding-left: 20px;">: 학생들 및 교육참가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li> </ul>				
<b>준비물</b>	교육발제문		<b>참고자료</b>	습지학 원론	
<b>평가</b>	- 습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음.				

<b>세 부 활동명</b>	전주천의 역사와 문화				
<b>교육일시</b>	7월 5일	<b>교육장소</b>	시민행동21	<b>교육인원</b>	15명
<b>강사</b>	<b>성명</b>	이종진		<b>연락처</b>	284-6161
	<b>약력</b>	시민문화센터 소장 전주문화원 사무국장			
<b>교육내용</b>	<p>1. 전주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지명 : 완산, 전주, 온고을등</li> <li>- 전주의 지형적 특성 - 산, 하천</li> <li>- 전주 8경 : 기린토월, 남고모종, 한벽청연, 다가사후, 덕진채연, 동포귀범, 비비락안, 위봉폭포</li> <li>- 전주의 물길 : 전주천, 삼천, 소양천, 고산천,</li> <li>- 전주천 다리 이름의 유래</li> <li>- 한벽당에 대한 이해</li> <li>- 전설: 한벽당과 지네</li> </ul>				
<b>준비물</b>	교제발제문		<b>참고자료</b>	지명으로 보는 전주백년	
<b>평가</b>	- 전주의 역사 및 전주천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고, 하천뿐만 아니라 하천과 어우러진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알게되었음.				

<b>세 부 활동명</b>	하천에서 배우는 환경놀이				
<b>교육일시</b>	7월 19일	<b>교육장소</b>	전주천변	<b>교육인원</b>	13명
<b>강사</b>	<b>성명</b>	이정현		<b>연락처</b>	286-7977
	<b>약력</b>	전북환경운동연합 기획팀장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교육시 진행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서 공부</li> <li style="padding-left: 20px;">: 갈대로 하는 놀이 : 풀피리 만들고 부는 방법</li> <li style="padding-left: 20px;">: 창포로 하는 놀이 : 겹나룻배 만드는 법</li> <li style="padding-left: 20px;">: 버들로 하는 놀이 : 버들피리 만들고 부는 방법</li> <li style="padding-left: 20px;">: 종이배나 신발로 하는 교육: 물속에 종이배나 신발을 띄워 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교육 및 놀이</li> <li style="padding-left: 20px;">: 하천에서 할 수 있는 놀이 및 교육방법에 대한 토의</li> </ul>				
<b>준비물</b>	교육 발제문		<b>참고자료</b>		
<b>평가</b>	- 하천 생태 교육시 아이들과 교육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에 대해서 공부				

<b>세 부 활동명</b>	하천생태와 생태지도 제작				
<b>교육일시</b>	8월 2일	<b>교육장소</b>	시민행동21	<b>교육인원</b>	12명
<b>강사</b>	<b>성명</b>	김진태		<b>연락처</b>	286-7977
	<b>약력</b>	전북환경연합 사무차장 전북대학교 생물학 박사			
<b>교육내용</b>	<p>1. 하천 생태와 생태지도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별로 수질과 어류, 식물등을 나타 낼 수 있는 하천 생태지도 제작에 대한 기본 지식 공부</li> <li>- 다른 지역에서 만든 하천 생태 지도 공부</li> <li>- 전주에서 만들 수 있는 생태 지도에 대한 토의</li> </ul> <p>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한 전주만의 생태지도를 제작 하자</p>				
<b>준비물</b>		<b>참고자료</b>	다른 지역 생태지도		
<b>평가</b>	생태지도 제작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전주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논의를 진행할수 있었다.				

<b>세 부 활동명</b>	꽃과 열매로 배우는 식물의 종족 보전 전략				
<b>교육일시</b>	3. 12	<b>교육장소</b>	시민행동 사무실	<b>교육인원</b>	27명
<b>강사</b>	<b>성명</b>	유승철		<b>연락처</b>	
	<b>약력</b>	전주지방환경청 청소년환경교실 강사			
<b>교육내용</b>	<p>1. 종자에 날개를 달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을 이용해 멀리 날아간다. 대표적인 것이 봄의 민들레. 누런 씨앗의 한 쪽에 솜털이 낙하산처럼 빙둘러 펼쳐져 있다. 이를 관모라 하는데 관모를 단 민들레 씨앗은 바람을 타고 수킬로미터까지 이동한다.</li> </ul> <p>2. 무엇에든지 달라붙어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길을 지나오면 바짓가랑이에 잔뜩 묻어 있는 귀찮은 종자들을 떼어내느라 애를 먹는다. 날개 달 힘도 과육을 만들 여력도 없는 이들 씨앗은 까락이나 끈적 끈적한 접착액을 이용해 동물의 몸에 붙어서 확산한다.</li> </ul> <p>3. 분출하는 에너지를 가져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숭아의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봉숭아는 씨앗주머니가 터져야만 씨앗을 퍼뜨리고 자손을 볼 수 있다. 콩깍지 속의 콩은 기온이 올라가 꼬투리가 말라 터지면서 멀리 튀어간다.</li> </ul> <p>4. 향기로운 과육으로 유혹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매를 따먹은 산새는 씨앗을 뱃속에 품고 온 산을 헤매다 씨앗을 배설하게 된다. 이동이 가능한 동물들이 뱃속의 씨앗들을 아주 넓은 지역까지 퍼뜨려주기 때문에 나무는 앉아서 천리를 갈 수 있는 것이다.</li> </ul>				
<b>준비물</b>	교육자료 발제문		<b>참고자료</b>	꽃의제국, 숲의생활사	
<b>평가</b>	식물의 수정과 번식을 전략별로 이해하였으며, 그것이 숲속 동물, 곤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게 됨.				

<b>세 부 활동명</b>	봄꽃의 비밀, 꽃눈과 잎눈의 구분				
<b>교육일시</b>	3. 13	<b>교육장소</b>	기린봉	<b>교육인원</b>	15명
<b>강사</b>	<b>성명</b>	최현숙		<b>연락처</b>	
	<b>약력</b>	시민행동21 교육위원 전주지방환경청 청소년환경교실 강사			
<b>교육내용</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봄에 피어나는 들꽃들의 이름을 공부함.</li> <li>2. 들꽃들의 겨울나기에 대해 공부함. (로제트형의 잎,...)</li> <li>3. 겨울눈의 구조, 겨울눈의 준비에 대해 이해함.</li> <li>4. 꽃눈과 잎눈에 대해 공부함.</li> <li>5. 나물로 먹는 식물에 대해 배우며, 식물과 식생활 문화 이해.</li> <li>6. 농경문화와 식물</li> </ol>				
<b>준비물</b>				<b>참고자료</b>	
<b>평가</b>	현장 교육을 통해, 겨울을 깨고 시작된 봄 풀들의 돌아남을 보면서, 숲의 생활사를 이해하게 됨.				

<b>세 부 활동명</b>	우리가 정말 몰랐던 식물의 사생활				
<b>교육일시</b>	4. 9	<b>교육장소</b>	시민행동 사무실	<b>교육인원</b>	32명
<b>강사</b>	<b>성명</b>	이병욱		<b>연락처</b>	
	<b>약력</b>	전주 신흥중 과학교사			
<b>교육내용</b>	<p>1. 모계 중심적 식물 사회</p> <p>2. 본능적 모성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려받은 유산: 난. 민들레</li> <li>- 후유증을 앓는 나무들 :신갈나무. 자작나무</li> <li>- 꽃잎에서조차 희생을 강요하는 식물: 장미와 달리아. 민들레, 신갈나무 땅콩</li> </ul> <p>3. 으뜸소리꾼 식물 - 사시나무의 울음</p> <p>4. 새들을 기르는 식물: 주목. 비목나무. 겨우살이. 먼나무. 산사나무 가시의 크기. 빈도, 특정 새만 만찬에 초대</p> <p>5. 화학무기 전문가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낸 교육지책: 담배, 양귀비,코카, 박주가리, 천남성, 노루귀, 박새, 고사리, 미치광이풀</li> <li>- 무기로서의 분비물질: 가래나무, 소나무의 타닌과 페놀, 호박, 고무나무, 오이와 제라늄</li> </ul>				
<b>준비물</b>	교육자료 발제문		<b>참고자료</b>	우리가 정말 몰랐던 식물의 사생활.	
<b>평가</b>	식물의 자기 방어, 종족 보전 방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됨.				

<b>세 부 활동명</b>	천등산의 식물생태 이해				
<b>교육일시</b>	5. 5	<b>교육장소</b>	천등산(전북완주군)	<b>교육인원</b>	116명
<b>강사</b>	<b>성명</b>	소재현 외 6인		<b>연락처</b>	
	<b>약력</b>	시민행동21 꽃다지 교육위원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과 함께하는 7회 들꽃기행으로 진행함.</li> <li>-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천등산 활골계곡을 따라 올라가며 수목과 들꽃에 대해 설명하고 공부함.</li> <li>- 관찰 및 설명한 수종 : 서양조개나물, 애기똥풀, 산철쭉, 콩제비꽃, 주름잎, 꽃마리, 개불알풀, 금창초, 내장금창초, 달맞이, 라일락, 두릅, 현호색, 산괴불주머니, 개망초, 썸바귀, 고들빼기, 원추리, 벌개미취, 쇠물푸레, 회잎나무, 화살나무, 말밭도리, 물참대, 노린재나무, 덜꿩나무, 총총나무, 소나무, 참나무류, 비비추, 산거울, 그늘사초, 억새, 으름, 참꽃마리, 금낭화, 취, 구절초, 썩부쟁이, 멸가치, 찔레, 고추나무, 국수나무, 초피나무, 잔대, 까치수영, 붉나무, 산가막살나무, 산초나무, 산뽕나무, 물푸레나무, 산딸나무, 병꽃나무, 다래나무, 쪽동백나무, 우산나물, 개별꽃</li> <li>- 나무 이름의 유래 설명.</li> <li>- 숲 생태계, 천이에 대한 설명.</li> </ul>				
<b>준비물</b>				<b>참고자료</b>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곡에 인접한 수종 및 들꽃에 대해 현장에서 관찰하고, 이해하게 됨.</li> <li>- 시민들에 대한 들꽃 해설 방법을 직접 보게 되어 이후 숲 해설 교육에 대해 이해하게 됨.</li> </ul>				



<b>세 부 활동명</b>	전주 수목원 식물의 분류적 특성 이해				
<b>교육일시</b>	5. 15	<b>교육장소</b>	전주수목원	<b>교육인원</b>	28명
<b>강사</b>	<b>성명</b>	길봉섭	<b>연락처</b>		
	<b>약력</b>	원광대 명예교수(식물분류학)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나무의 구분</li> <li>- 쥐똥나무, 광나무</li> <li>- 수수꽃다리, 정향나무, 라일락</li> <li>- 벗나무속에 대한 설명</li> <li>- 소나무류에 대한 설명</li> <li>- 삼백초, 약모밀 구분</li> <li>- 콩과 식물의 뿌리혹박테리아</li> <li>- 양지꽃류의 구분</li> <li>- 무궁화류의 구분</li> <li>- 느티나무, 시무나무 등 느릅나무과 구분</li> <li>- 붓꽃류 구분</li> <li>- 식물 채집 및 보관 방법 설명</li> <li>- 식물 동정의 방법. 식물검색집 소개</li> </ul>				
<b>준비물</b>			<b>참고자료</b>		
<b>평가</b>	- 수목원에 있는 식물들에 대해 식물분류학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채집, 보관, 식별, 동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게 됨.				

<b>세 부 활동명</b>	수중 생태계 및 수생식물 개요				
<b>교육일시</b>	6.4	<b>교육장소</b>	시민행동 사무실	<b>교육인원</b>	23명
<b>강사</b>	<b>성명</b>	신진철		<b>연락처</b>	284-6161
	<b>약력</b>	전북대 환경대학원 석사 시민행동21 환경센터 소장			
<b>교육내용</b>	1. 수중 생태계의 특성 2. 물속의 먹이 사슬 3. 수질오염의 원인 4. 자연형 하천 조성의 내용 5. 수생 식물의 역할 6. 수생 식물의 종류 및 생태 특성 7. 습지 생태계의 특징				
<b>준비물</b>	프리젠테이션 자료		<b>참고자료</b>		
<b>평가</b>	육상 생태계와 다른 수생 생태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생 식물의 생태에 따른 특성(정수, 침수, 부엽식물)에 대해 이해하게 됨. 또한 이러한 식물이 산소 공급, 수질 정화에 있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게 됨.				

<b>세 부 활동명</b>	식물 분류의 기본 및 과별 특성				
<b>교육일시</b>	7.2	<b>교육장소</b>	시민행동21 사무실	<b>교육인원</b>	27명
<b>강사</b>	<b>성명</b>	길봉섭		<b>연락처</b>	
	<b>약력</b>	원광대 명예교수(식물분류학)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 분류의 기본(식별, 동정, 명명 등)에 대한 설명</li> <li>- 식물 채집의 요령에 대해 설명</li> <li>- 식물 각 과의 개략적 특성 설명. (꿀풀과, 양귀비과, 소나무과, 백합과, 콩과, 양치 식물 등)</li> <li>- 구분하기 어려운 식물들을 식물분류적 관점에서 차이를 찾아내고, 동정하는 연습 진행함 (슬라이드 교육) : 억새과 달뿌리풀, 낙우송과 메타세쿼이아, 팽나무와 푸조나무, 붓꽃과 창포, 노린재나무와 물참대, 원추리 종류 등</li> </ul>				
<b>준비물</b>	슬라이드 사진, 환등기		<b>참고자료</b>		
<b>평가</b>	식물분류 및 이해에 있어 중요한 각 기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식물들의 차이를 파악하여, 더욱 정확한 숲 해설을 할 수 있게 됨.				

<b>세 부 활동명</b>	기린봉 들꽃의 생태 이해				
<b>교육일시</b>	7.16	<b>교육장소</b>	기린봉	<b>교육인원</b>	18명
<b>강사</b>	<b>성명</b>	최현숙		<b>연락처</b>	
	<b>약력</b>	꽃다지 교육위원 환경청 청소년환경교실 강사			
<b>교육내용</b>	<p>1. 여름철의 숲 생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거진 숲과 도시 기후 조절</li> <li>- 비와 숲, 녹색댐.</li> <li>- 여름 꽃의 수정을 위한 전략</li> <li>- 여름에 준비하는 겨울눈</li> <li>- 작은 열매들의 관찰</li> </ul> <p>2. 도시 숲의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숲의 조림</li> <li>- 조림 수종의 특징</li> <li>- 도시 숲의 역할</li> </ul>				
<b>준비물</b>		<b>참고자료</b>			
<b>평가</b>	여름철의 숲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숲의 생활사를 이해하게 됨. 도시 인근 숲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차별화된 내용 및 도시 숲 보전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게 됨.				

<b>세 부 활동명</b>	고산지대(백두산) 식물 생태				
<b>교육일시</b>	8.13	<b>교육장소</b>	시민행동21 사무실	<b>교육인원</b>	19명
<b>강사</b>	<b>성명</b>	이종기		<b>연락처</b>	
	<b>약력</b>	전북과학고 교사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산지대의 기후지리적 특성</li> <li>- 고산지대 들꽃의 생태적 특성</li> <li>- 수목 생육 한계</li> <li>- 고산지대 꽃의 색깔이 더 진한 이유</li> <li>- 고산 습지 식물의 질소 섭취 방법 : 식충식물.</li> <li>- 백두산의 수종 및 들꽃 학습</li> </ul>				
<b>준비물</b>	프로젝터, 노트북		<b>참고자료</b>		
<b>평가</b>	고산지대는 저지대와 다른 기후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생태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백두산은 사람의 접근이 제한된 만큼 희귀식물이 많으며, 보존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됨.				

<b>세 부 활동명</b>	들꽃을 이용한 천연염색				
<b>교육일시</b>	8. 27	<b>교육장소</b>	김제	<b>교육인원</b>	23명
<b>강사</b>	<b>성명</b>	고석렬		<b>연락처</b>	
	<b>약력</b>	김제시 천연염색 강사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염색의 원리</li> <li>- 천연염색의 종류</li> <li>- 천연염색 방법</li> <li>- 천연염색 실제(쇠뜨기)</li> <li>- 천연염색 실제(양파)</li> <li>- 천연염색 실제(장미)</li> </ul>				
<b>준비물</b>	쇠뜨기, 양파, 장미, 염색할 천		<b>참고자료</b>		
<b>평가</b>	<p>식물이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최근 화학염색에 대한 대안으로 인기 있는 천연염색을 실습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됨.</p>				

<b>세 부 활동명</b>	식물사진 촬영기법				
<b>교육일시</b>	9.11	<b>교육장소</b>	선운사	<b>교육인원</b>	24명
<b>강사</b>	<b>성명</b>	유승철		<b>연락처</b>	
	<b>약력</b>	환경청 청소년환경교실 강사 전주시 반상회 소식지 '더불어사는 전주'에 들꽃 사진 게재.			
<b>교육내용</b>	1. 사진 촬영의 원리 2. 조리개, 셔터, 감도 3. 디지털 카메라 4. 접사시 주의할 점 5. 노랑색 꽃 촬영시의 노출 조절 6. 배경과의 대비 효과 7. 구도				
<b>준비물</b>	카메라		<b>참고자료</b>		
<b>평가</b>	카메라의 수동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자료화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배우며, 나아가 심미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됨.				

<b>세 부 활동명</b>	수생식물과 수질정화, 하천살리기(강의날대회)				
<b>교육일시</b>	9.24	<b>교육장소</b>	시민행동21 사무실	<b>교육인원</b>	29명
<b>강사</b>	<b>성명</b>	소재현		<b>연락처</b>	
	<b>약력</b>	전주수목원 연구원 시민행동21 공동대표			
<b>교육내용</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생식물의 정의</li> <li>2. 수생식물의 종류</li> <li>3. 수생식물의 생태적 차이</li> <li>4. 수생식물을 통한 수질 정화의 원리</li> <li>5. 강의날 대회 참가 소감 및 타 지역 사례 소개</li> <li>6. 2006년 강의날 대회 전주 유치의 의미</li> </ol>				
<b>준비물</b>	프로젝터, 노트북		<b>참고자료</b>		
<b>평가</b>	수서 생태계에 있어서 수생식물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됨. 강의날 대회에 참여한 각 지역의 사례를 듣게 되어, 지역 환경 보전에 대한 열의를 갖게 됨. 2006년 강의날 대회 유치에 따른 앞으로의 역할 등에 대해 동기부여 받음.				



<b>세 부 활동명</b>	기린봉의 들꽃과 교육프로그램				
<b>교육일시</b>	10. 8	<b>교육장소</b>	시민행동21 사무실	<b>교육인원</b>	19명
<b>강사</b>	<b>성명</b>	김재병		<b>연락처</b>	281-2959
	<b>약력</b>	전주의제21 사무국장			
<b>교육내용</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린봉 들꽃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소모임의 그동안 활동 소개</li> <li>2. 기린봉 들꽃에 대한 영상 교육</li> <li>3. 들꽃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안) 소개</li> <li>4. 전주 지역 야산을 인근 학교의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자</li> <li>5. 아중초등학교 교사들과의 공동작업 소개</li> </ol>				
<b>준비물</b>	프로젝터, 노트북		<b>참고자료</b>		
<b>평가</b>	기린봉에서 들꽃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것을 설명함으로써, 향후 각 지도자들이 인근 공원 및 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됨.				

<b>세 부 활동명</b>	회문산의 식물생태 이해				
<b>교육일시</b>	10. 17	<b>교육장소</b>	회문산 자연휴양림	<b>교육인원</b>	122명
<b>강사</b>	<b>성명</b>	소재현 외 6인		<b>연락처</b>	
	<b>약력</b>	소재현(전주수목원 연구원, 시민행동21 공동대표)			
<b>교육내용</b>	<p>* 시민과 함께 하는 제8회 들꽃기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을 숲의 생태</li> <li>2. 단풍과 낙엽</li> <li>3. 가을산을 수놓은 국화와 식물의 특징</li> <li>4. 가을 열매는 겨울을 대비하는 동물들의 식량원</li> <li>5. 식물의 향기(향유, 배초향, 들깨풀)</li> <li>6.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들의 전략</li> <li>7. 생태계에 미치는 사람의 영향, 생태 보전과 사람의 역할</li> <li>8. 들꽃 생태 공부 (쑥부쟁이, 까실쑥부쟁이, 구절초, 향유, 꽃향유, 산박하, 금불초, 산국, 고려엉겅퀴, 배초향, 참취, 궁궁이, 눈괴불주머니, 층꽃풀, 이고들빼기, 왕고들빼기, 개여뀌, 비목, 사람주나무, 굴피나무, 졸참나무, 벗나무, 삼나무, 누리장나무, 산딸나무, 층층나무, 광대싸리, 물봉선, 진득찰, 원추천인국, 코스모스, 노랑코스모스, 일일초, 페튜니아, 메리골드)</li> </ol>				
<b>준비물</b>	자료집, 꽃님들의 들꽃사귀기, 야생화달력		<b>참고자료</b>		
<b>평가</b>	<p>시민들과 함께하는 들꽃기행을 통해, 그동안의 지식을 검증하고, 새로운 지식을 시민으로부터 얻게 됨. 가을 산의 생태를 현장에서 이해하게 되고, 숲 속 구성원인 수목과 나무, 곤충과 동물들의 겨울 준비를 알게 됨.</p>				

<b>세 부 활동명</b>	식물분류와 식물생리의 기초 이해				
<b>교육일시</b>	12. 3	<b>교육장소</b>	시민행동21 사무실	<b>교육인원</b>	38명
<b>강사</b>	<b>성명</b>	이종기	<b>연락처</b>		
	<b>약력</b>	전북대학교 교사			
<b>교육내용</b>	1. 5개 분류 체계 2. 식물의 분류 3. 식물분류의 준거 4. 피자식물과 나자식물의 비교 5.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의 비교 6. 잎의 구조 7. 줄기의 구조 8. 뿌리의 구조				
<b>준비물</b>	노트북, 프로젝터		<b>참고자료</b>		
<b>평가</b>	식물의 분류 및 각 종류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음. 또한 식물의 생리 부분을 여러 그림과 도해를 통해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b>세 부 활동명</b>	자생, 특산, 귀화 식물			
<b>교육일시</b>	2005. 1. 7	<b>교육장소</b>	시민행동21 사무실	<b>교육인원</b> 41명
<b>강사</b>	<b>성명</b>	김재병	<b>연락처</b>	
	<b>약력</b>	꽃다지 교육부장. 전주의제21 사무국장		
<b>교육내용</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어정의</li> <li>2. 한국특산식물</li> <li>3. 한국특산식물의 구계별 특징</li> <li>4. 한국특산식물 사례</li> <li>5. 전북 지역 산의 특산식물</li> <li>6. 귀화식물의 특징</li> <li>7. 귀화식물의 종류(자연, 도입, 가주, 예비, 사전 귀화식물)</li> <li>8. 식물이름의 유래</li> </ol>			
<b>준비물</b>	노트북, 프로젝터		<b>참고자료</b>	
<b>평가</b>	식물의 유래 및 기원에 따른 구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됨. 특산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각 구계별 특징을 이해하며, 전북 지역에 자생하는 특산식물을 이해하게 되어, 숲 탐사 및 해설의 중요한 자료가 됨. 한편 하천변에서 많이 보이는 귀화식물에 대해 이해하게 됨.			

6. 예산사용 내역서  
(영수증 별첨1 참고)

항 목	예산배정	지출내역	집행액	영수증/잔액
		소 계	0	+ 50,000
		소 계	3,500,000	-200,000
		소 계	1,000,000	0
		소 계	336,100	-36,100
		소 계	750,000	+ 50,000
		소 계	330,000	-30,000
		소 계	0	+ 100,000
		소 계	80,000	+ 20,000
		소 계	4,000	+ 46,000

## 7. 종합평가

### 가. 수업평가서 (참가자) (별도 양식 대신 평가 내용만을 정리함)

#### # 1. 전주수목원 자원봉사를 마치고 / 피영집

내가 처음 전주수목원 자원봉사 강사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을때는 정말 아찔했다. 내가 비록 지도자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꽃에 대해서 아는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빠져 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강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큰일이었다. '그동안 꽃에 대해서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해 놓을 걸...' 정말 후회가 됐다

'그래 지금 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머피의 법칙이라고 했던가' 하필이면 이런때 여러가지 일이 생기던지... 수목원 자원봉사의 날짜는 가까워져오고 준비한것은 없고.. 점점 초조해져만 갔다

수목원 자원봉사 당일 아침. 부랴부랴 준비는 했지만 웬지 부족하고 허술한 것만 같고 이러다가 망신당하는것 아닌가?, 그래도 나 혼자 망신당하면 다행인데, 우리 꽃다지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과 함께 여러가지 잡다한 생각, 또 강사하기위해 준비한것들, 정말 여러가지가 내 머리속에 섞여 있었다

수목원에 미리 가서 소개할 꽃들도 한번 둘러 보고 웬지 내가 준비한것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꽃들도 한번 둘러 본다. 자원봉사 시간이 다가왔다 속으로 '화이팅!' 을 외치고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오늘 따라 웬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온것 같고 나를 바라보는 저많은 눈빛들. 정말 부담 그 자체였다 다시 한번 속으로 ' 화이팅'을 외치고 시작했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소개할 꽃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 어찌 된것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어제도 연습하고 오늘 아침에도 연습했는데.. 우째 이런일이...

그래서 다음 꽃으로 가서 설명을 시작했다 , 내가 준비한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 사람들이 내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지루해 하는지 살펴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수가 줄어 드는 것 같다, ' 내 설명이 재미 없는 것인가, 확! 노래라도 한번 부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빠질때쯤 땀을 흘려 가며 설명을 마쳤다. 설명을 끝내고 나니 주위에서 '수고했다'고 하고 '정말 잘했다'고도 칭찬해준다.

그러나 나는 아쉬움이 남는다. '조금 준비해서 잘할걸.. ', 어쨌든 나의 첫 수목원 자원봉사 강사가 끝난 것이었다. 아마도 첫 자원봉사 하면서 준비한 꽃들은 평생가도 안 잊어 먹을 것 같다

#### # 2. 들꽃 생태 지도자 교육 / 양미라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도 항상 멀게만 느껴졌던 들꽃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진미를 알

고,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는 게 모든 생물체가 아닌가 싶다.

오늘은 어떤 분의 강의를 있을까 한발 치 뒤에 서 있으면서도 눈은 교육으로 향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걸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고, 역사문화를 하는 내게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참가하게 됐다.

지난 김재병님의 교육을 듣고 우리가 주변에서 봄만 되면 쉽게 볼 수 있었던 개나리가 우리나라 특산식물이었다는 것이 너무 새롭고 신기했다. 특산식물이라 하면 멸종위기의 희귀한 식물들만 떠올렸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개나리가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역시 평생 배워야 할 게 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특산식물인 개나리는 중국산인지, 조선 야생 개나리인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토론이 이어지자 노란 예쁜 개나리가 꽃을 넘어 어려운 식물과제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좀더 적극적인 수강생이 되기위해 수강생 몇몇이 꽃 피기 전 예비지식을 쌓아두기 위해 겨울 들꽃공부를 시작했다. 인류가 생기면서 최초의 박테리아, 그리고 이끼가, 그리고 꽃들이... 교배를 하기위해서 자가수정을 하지 못해 외부의 꿀벌들이나 나비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향을 내고, 꽃을 피우는 꽃들에게 뭘지 모를 크게 배우는 게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 # 3. 시원한 물속에서 쉬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하천 체험교실 / 장영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올해 여름, 다리 밑에는 무더위를 피해 장기를 두고 낮잠을 자는 동네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이 피서를 즐기고 있고, 우리는 아이들과 샌들에 반바지 차림으로 족대들고 시원하게 물속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인가? 전주천에서 공식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그 순간 물론 잡은 고기들은 바로 놔주지만 시원한 물속에서 쉬리, 돌고기, 모래무지, 피라미, 다슬기등 수많은 물속 생물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 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거리를 떨쳐버리고 동심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이다.

시민행동21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은 우리들이 아직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줄 만큼 전문강사는 아니지만 몇 차례 하천, 물고기, 수생식물,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물과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여울 회원들과 함께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고, 교육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여 우리 수준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이들과 교육을 진행하면서 전주천뿐만 아니라 좀더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물과 수많은 생물들을 만났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우리들도 좀더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 있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천체험교실이 2004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은 만큼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 연구와 함께, 좀더 많은 아이들이 전주천에서나마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한다.

#### # 4. 생각하는 식물-이동할수 없을뿐? / 황혜진

대나무는 그 생태환경이 열악해서 지속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면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꽃을 피운다고 한다. 씨앗을 만들어 다른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란다. - 생존이 열악해서 살기 힘들면 그냥 죽는거지...또 자식들은 생각한다구...짜식...

개다래나무는 개화기에 잎이 하얗게 변하는데, 이러한 백화현상은 잎을 하얗게 변화시킴으로써 꽃이 잘 보이게 하여 벌과 나비를 유인하는 수단이다. - 꼬시는 거야? 그런거야?

특별한 기관이 있어 곤충등의 작은 동물을 잡아 그것을 소화시켜서 양분의 일부를 얻고 있는 식물을 총칭하여 식충식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식충식물은 산성토양지대 등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변형된 것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 정말이야? ...유기물이 부족하면 굶어죽는거 아닌가?...곤충을 잡아먹을 생각을 어찌했지?...기발한걸...아이디어상 줘야되나?...

나처럼 처음 들꽃을 접하는 사람들은 강의를 듣고 어떤 느낌일까?

식물의 신비!!....식물이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일까?...아니면, 정말로 종족을 유지하고, 번식시키는 "본능"이라는 것의 힘이 이렇게도 큰 것일까?... 마치 식물들은 본능이 아니라..."어떻게 하면, 종족을 유지번식시킬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끝에 행동을 취하는 거 같다.

잎이 곤충등을 포획하는 함정으로 변형된 것이 "내 잎을 변형시켜서 곤충이라도 잡아먹자!"라고 생각하고 한게 아니라, 단지 "본능에 충실해!"(ㅋㅋ...웃찾사 보시는 분만...)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믿기십니까?...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아무래도 그것들이(식물들) 생각을 하는 것만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 # 5. 아름다운 생명을 위해 환경운동을 / 김영옥

생명은 아름답다. 꽃다지에서 식물교육을 들으면 이말이 절로 되뇌어진다. 그동안 잡초라 똥그려부르며 그냥 지나쳤던 풀들도 엄연한 생명으로서 감동을 주는 존재로 다가선다. '어쩔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자랄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나 아름답구나'하는 감탄이 절로나온다.

처음 '시민들을 위한 들꽃기행'을 통해 꽃다지와 인연을 맺었는데, 의미있게 다가서는 들꽃들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그 들꽃들을 아름다워하는 꽃다지회원들에게 반했다. 그리고, 식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교육에까지 이어지니, 학교에서 배운 마주나기,돌려나기,총상화서 등등의 식물용어들이 '야! 이꽃은 돌려나기잎이구나~'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듯 생기넘치는 용어가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만큼 사랑한다고 했던가.



푸른빛 식물이 있는곳은 온통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곁에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요즘엔 꽃다지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보전에 대해서 뜻을 모으고 있다. 아름답다고 혼자만이 소유하는 자연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래도록 함께 할수있는 자연을 위해 환경운동에도 힘을 모아 나아가야겠다.

## # 6.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 이윤재

꽃다지와 인연을 함께 한지도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으로 같이 했던 덕유산 기행,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뼈국나리, 까치수영, 장구채, 벌노랑이, 물봉선등 비를 온 몸으로 맞으며 자태를 뽐내던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처음 온 이방인을 따스하게 맞아 준 꽃다지 회원님들의 사랑 또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사진이 배우고 싶어 야생화를 모델로 삼아 사진을 찍고 있던 저, 야생화의 아름다움, 사진의 영상미 너무 거창한 건진 모르겠지만 좀더 선명하고 이쁜 사진을 찍고 싶었던 저에게 야생화는 하나의 모델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 야생화들을 못 살게 괴롭히기도 했지요.

그러나 단순한 모델의 대상이었던 야생화가 자신의 종족의 번식과 개체수의 유지와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며, 대가를 치르는지를 알고 부터는 길가의 단순한, 작고 불품없던 아니 눈에도 잘 보이지 않던 식물이 대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야생화를 단순한 사진기의 모델 수준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또한 나와 서로 공생해야할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해주신 많은 강사님과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7. 둥굴레와 뼈꼭나리 / 오충현

작년부터 활동을 하게된 평화생태호수 주민모임 ...

그저 단순히 주민들이 모여서 호수주변 청소와 맑은 물로 되돌리기 위한 모임 인줄 알았는데, 한번 두 번 참석을 하게되니 어! 이거 장난이 아닌데..

공부를 하기로 맘먹고만 있었는데 같은 모임인 주목님이 거의 나하고 컨셉이 맞는데가 있구나 뭐라나, 어쨌든 가보자하고 따라나선 곳에서 야생화 에 대한 엄청난 실력을 가진 분들을 만나고 덕유산 들꽃기행을 따라 나선 길 에서 어디선가 낮익은 잎을 가진 녀석을 만났는데 한번도 접한 적이 없는 꽃이었다.

펼뛰기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듯한 꽃을 달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둥굴레인데 꽃이 희한하네요?..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노각님이 아 글썽 뼈꼭나리 라고 하시는데 ... 둥굴레로만 알고 시골집 밭가에서 삼으로 푹 떠다가 차 끓여 먹는답시고 화단 한켠에 옮겨심어놓은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며 돌이켜보니 등굴레치고는 어쩐지 줄기가 길고 뿌리가 작더라....

이렇게 시작한 꽃다지활동. 가끔씩 큰 아이를 데리고 산에 다니며 주섬주섬 주위들은 풍월로 아이에게 야생화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고(아는만큼만) 하다보니 나도 조금씩은 알아가는구나....

가을 들꽃기행 큰아이를 데리고 나선 회문산 에서 마타리 님을 따라다니며 같은 조원들과 산머루 두어 송이를 따먹으며 올라간 중턱에서 등굴레로 알고 차 끓여먹으려던 삐죽나리 발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던지. 지금도 삐꾸기 꼬리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나는 풀뚜기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삐죽나리를 생각하면 흰눈이 날리고 있는 이 겨울에도 삐죽나리가 활짝 피는 계절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가끔 따라다니던 큰아이가 “이게 뭐지?” 하고 물으면 그냥 풀 아니면 꽃으로 대답할 때 보다 띄엄띄엄 이름을 알아 맞추는 것을 보며 아이들에게도 식물 이름 하나, 곤충, 물고기 이름 하나를 알려주는 것이 덧셈, 뺄셈 하나 더 가르치는 것보다 소중한구나 생각하며 우리 산, 우리 들녘에 외래종이 아닌 토종 동, 식물이 예전처럼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 # 8. 기린봉 들꽃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며 / 안정임

꽃다지에서 들꽃 생태 지도자 교육을 들으면서, 참석한 사람들끼리 조를 구성했다. 본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자기 지식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도자 교육의 주된 방침이라 한다. 나는 집에서든 가깝고, 초보자에게 적당한 ‘기린봉 들꽃교육 프로그램’ 반을 선택했다. 나 역시 학교 교사인지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우선,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에 우리가 선택한 코스를 탐사하기로 하였다. 기린봉에 인접한 아중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주 올라갈 수 있겠지... 그리고, 지도자 교육이 있는 셋째 주에 조별 모임을 가지고, 그 달의 식물과 생태변화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다들 수준이 고만고만한지라,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더 열심을 내기도 하였다. 이전에 강사님들에게 들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추운 겨울에도 로제트형의 뿌리잎을 달고 겨울을 이겨내는 들꽃들부터 눈에 들어왔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번호표를 붙였다. 봄이 시작되고, 여름이 오면서, 잎도 커지고, 꽃도 피어났다. 즐기있는 봄에 보았던 뿌리잎과는 또 달랐고, 꽃만 알고, 열매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통째로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하나 동정해 가고,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그동안의 자료를 정리하여 들꽃교육 가이드북 형태를 만들었다. 우리의 코스에서 중요한 관찰 포인트를 생태지도 형태로 만들고, 각 들꽃과 나무에 대한 설명을 달았다. 책으로 묶어 내니, 참 대견했다. 기린봉 인근 학교에서 서로 달라고 한다.

교육 효과면에서 수동적인 피교육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린봉 들꽃교육 프로그램반 조원 역시 이것을 실감하였다. 이후의 지도자 교육에서도 이런 진행 방식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다.

## # 9. 수목원 자원봉사 참가 후기 / 김경숙

저는 청솔님 팀에 합류했습니다...

청솔님은 나무위주의 설명을 하셨구요... 비슷한 나무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꽃설명 주제는 "식물들은 지금의 자기세대로 끝나는 삶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비행을 하며 씨를 멀리 날려보낸다..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니다...미래를 위한 삶이 있다" 그리고 삼백초를 설명하실때 꽃으로 약하면 잎으로라도 자기를 노출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다... 여성분이여 얼굴이 안되면 "화장발" "의상발" 이라도 살려보시라..(얼마나 찢리던지..).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하기... 먼저 이팝나무, 쥐똥나무, 팽이밥, 주름잎, 라일락, 배롱나무, 화백, 측백, 곰솔,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대나무, 별목련, 목련, 팽나무, 메타세퀘이아, 튜올립나무, 산사춘나무..

그리고 해지는 들녘을 따라.. 코스모스 만발한 들길을 따라..찾아간... 김제 지평선축제...아리랑 문학회.....그곳엔...손이 따뜻하신...영경퀴님이 계셨습니다.. 천연염색을 전시해놓은...참 이쁜 천들과..이쁜 옷들이 아담하게 전시되어있었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연구실로 쓰시는듯 해 보였습니다..

참 좋은분들이 전주에 사신다는것...꽃도 이쁘지만..그보다더 아름다운분들이..같은주제로 모여서.. 같이 무엇인가를 공유한다는것..그것만으로도...참 살만한 세상이라는걸...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행운아 인가봅니다...이런 좋은분들을 만날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참 감사해요...

## # 10. 행복한 교육 / 박현정

다섯 살 아들이 행여나 물어볼까? 걱정이 앞섰던 참이다.

"엄마!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엄마! 이 꽃 이쁘다. 이걸 또 뭐지?"

대답을 몰라 나무는 대충 소나무 꽃은 그냥 꽃 하기가 창피해 공부가 필요하던 중, 좋은 기회가 왔다.

들꽃 생태지도자교육.

이름이 꽤 무거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교육 아닐까 했는데, 강사님들의 친절한 가르침과 잘 정리된 교육일정이 걱정을 덜어주었다.

실내 빔프로젝트로 진행된 여러 종류의 실내강의는 어서 빨리 꽃과 나무가 있는 산으로 들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북돋아주었고, 봄 가을에 떠났던 들꽃기행은 말 그대로 가족과 함께 자

연을 느끼고 자연에서 지혜를 배웠던 소중한 기행이었다.

거기에 수목원에서 배우고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솔직히 그것도 배움의 가장 큰 항목이었다)까지 얻을 수 있어서 평범한 사람이 자연을 또 환경을 친구처럼 사귀는 능력을 갖게 만든 어마어마한 교육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기쁜 건 가끔씩 물어오는 아들의 질문에 이제는 대충 둘러대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느 정도는 대뜸 이야기 해 줄 수 있게 되었고 모르는 것은 더 찾아서 공부하는 법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집 앞의 작은 풀 꽃들이 소중해지도록 만드는 이런 교육이야말로 세상사는 맛을 느끼게 하는 행복한 교육이 아닐까 한다.

## # 11. 들꽃야학의 겨울 공부 / 류제협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발까지 날리며 올해들어 제일 춥다는 일기예보도 우리 들꽃야학 학동들의 향학열을 가로 막진 못합니다. 우리의 호프 구상선생님, 텅텅한 작은오빠 山님, 다정한 작은언니 느티님, 군산서 달려오신 만주 자작나무님, 그리고 열레지님, 여자의 변신엔 이유가 있는데 조팝님은 머리를 싹뚝 하고 단발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또 많은 꽃님들 계셨지만 아직 얼굴+꽃이름 매치가 안돼서.....죄송 합니다.

자~ 이제 강의시작입니다! 우리들이 중, 고등학교때도 배웠던 교목:관목. 쌍떡잎식물:외떡잎 식물. 유성생식:무성생식.... 구상 선생님께서 중간 중간에 들려주시는 특별 반찬이 더 맛있었지요

\* 한쪽에 수천만원씩 가는 돌연변이 란(蘭)은 실은 병신란을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란다. 식물은 이동이 불가 하므로 결국 자기가 처한 여건과 처지에 맞도록 자기를 변화 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라는군요.

\* 개 다래나무 개화기에 잎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 -사람들 백선병(白癩病) 으로 손발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나타나는 건 녹음기에 꽃이 잎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니 잎을 하얗게 변화시켜 벌 나비를 유인 하는 생식 촉진 수단이라는군요.

\* 배나무 과수원 근처에 사시는 꽃님들 정원에 향나무는 심지 마오. 배나무 적성병의 근원으로 배나무 과수원 망하고 심하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

\* 이효석이 아니라도 하얀 소금을 뿌린듯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곳에 가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암술이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볼 수있는데 이걸 꽃이 orgasm 을 느끼는 것 이라네요. 종족번식을 위한 음양의 조화는 오묘해서 식물의 세계에서조차 암술머리에 슛 꽃가루가 접촉되면 암술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부드러운 애액이 나와 슛꽃가루를 씨방으로 안내 하여 수정을 한다는군요. 참~ 그야말로 천지 조화속으로..... 메밀꽃 필무렵의 그 메밀꽃들과 물레방아의 상징성 이런 것들이 다 또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 줄 이제야 조금 알듯 말듯...

이렇게 계속 배우다 보면 강사님들처럼 재미난 강의할 날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열심히 논산서 전주로 달려오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고 보람있

습니다.

## # 12. 들꽃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 박은선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이 하고자 했던 것의 어려움에서 한참 우울해 했던 때였다.. 꽃다지에 계신 어떤 꽃님의 권유로 활골 이란 곳을 가보게 되었다.. 2004년의 4월...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 이 길에, 이렇게 조그맣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을 줄이야.. 머리를 무스 발라 뒤로 넘긴 듯한 분홍빛 얼레지. 노란빛으로 넓게 군락을 이룬 피나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보석상자 일 것 같은 꽃 팽이눈 ..세상에 태어나 이것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승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 란 생각이 들게 했다..

그 후로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욕심에 꽃다지 정기모임과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되어버렸고.. 나를 설레게 했던 꽃의 시늬가 아깝고 내 곁에 두고 싶다는 욕심이였을까? 꽃을 사진에 담아 보려고 노력하다가... '무지개'라는 사진 모임에도 활동을 하게 되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뇌에 입력되어 있듯이 꽃을 바라보고 느끼는 이 마음 또한 즐거운 것이리라... 오늘도 나는 하얀 눈 속에서도 파란 잎을 간직하고 봄을 기다리는 풀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다.

## 나. 종합적인 사업평가

### ○ 지도자 교육 이수자가 환경해설가로 활동하게 됨

시민행동21은 지속적으로 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을 병행하여 왔다. 단지 지도자 교육을 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연계되려면,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시민행동21은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교육 이수자들이 전주수목원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수행한 지도자들은 교육 효과가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 후 더 교육열의가 높아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였으며, 이후 본인이 소속한 곳에서 환경해설을 진행한 지도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교육에 참여한 아중초등학교 교사들은 인근 인봉초등학교와 함께 기린봉 코스에 나무이름을 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을 진행하였다.

### ○ 이전에 지도자 교육 이수한 사람이 강사로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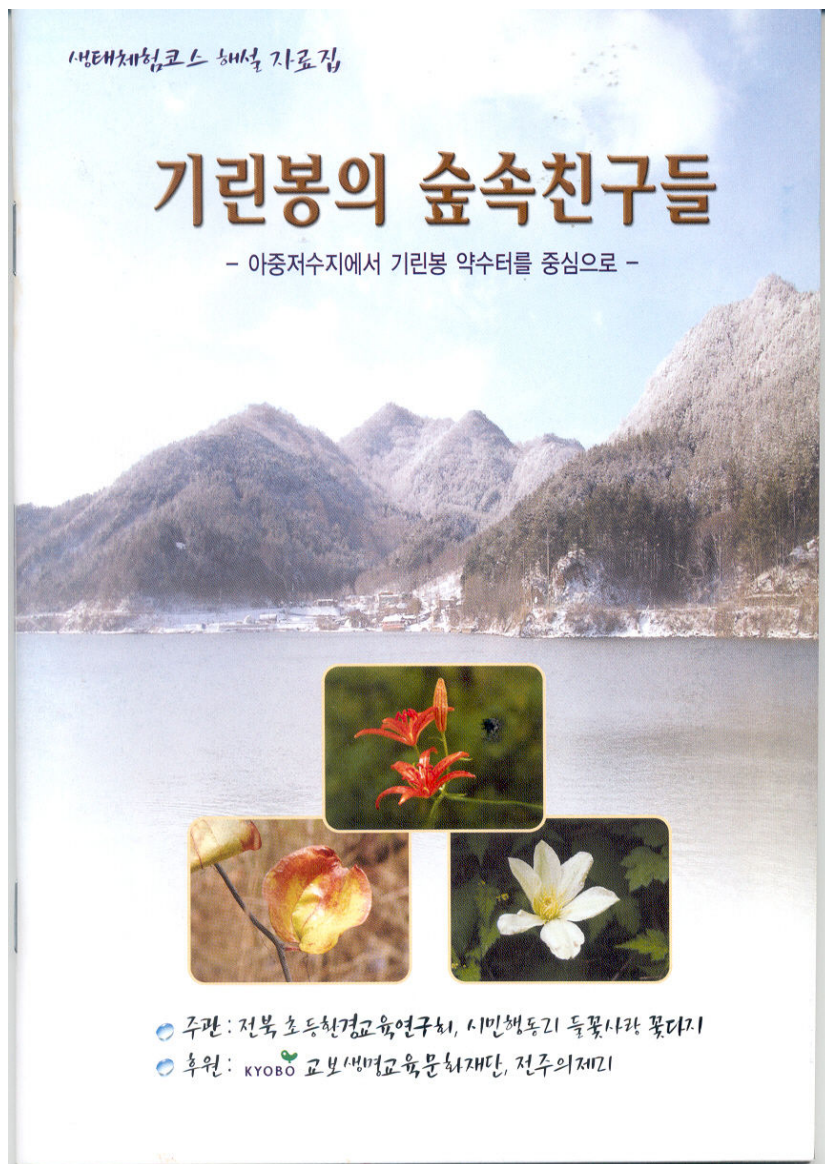
2002, 2003년에 진행한 지도자 교육에 참가하였던 사람들 중 몇은(류달재, 김재병, 최현규 등) 2004년에 강사로 성장하여, 보다 피교육자에 맞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시민들로부터 시민운동 리더를 키우는 것인데, 이 점에서 지도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자 교육이 계속되면서, 몇차례 반복 교육을 받고, 자기 분야의 지식을 넓힌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 교육의 강사가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단체의 간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 주도적 학습을 위한 분반 교육이 성과 보임.

이번 교육부터는 주도적 학습을 위한 분반교육을 진행하였다. 본인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주도적으로 학습할 때 그 효과가 높고, 참여의식도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하였다. 관심 주제를 제안하라고 하였고, 이 주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임을 짓는 형식으로 하여, 수생식물반, 약용식물반, 사진반, 기린봉 교육프로그램반 4개의 분반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전체 지도자 교육이 절반은 집행부가 주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분반이 준비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린봉 교육프로그램반은 자체적으로 답사 일정을 정하고, 교사를 초빙해 공부를 하였으며, 이를 자료집으로 제작하였다. 수생식물반은 전주권내의 소류지에 대한 조사에 같이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 소류지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론을 조성하게 되었다.



○ 전주시정에 정책적 영향 미침

시민행동21의 '소류지' 조사는 지역사회의 공론을 조성하였고, 이에 전주시청에서도 전체 소류지에 대한 조사 및 주요 4개 소류지에 대한 집중 생태 조사 용역을 진행하였다.

\* 다음은 관련 신문기사 내용.

#### [전북일보] 시민단체 저수지 생태공원화 추진

"삭막한 회색도시 녹색쉼터 늘려야..."

전주의제21과 자연보호전주시협의회, 시민행동21 등 시민단체들이 저수지(소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현재 전주시 관내 64개 저수지 중 용도폐지(예정)된 저수지는 기전여중·고 인근 '양산제', 서부신시가지의 '농소제', 서곡지구구의 '서은제', 평화1동 택지개발예정 지역내 포함된 '옥녀제' 등 모두 4곳. 이 가운데 서은제는 용도 폐지됐으나 매립은 안된 상태다.

이처럼 일부 저수지가 택지 개발이나 농업용수 사용중단에 따라 용도 폐지된 경우에도 매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주의제21 등 시민단체들은 이를 자연학습장 등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와 협의를 거치거나 시설물 보완 등을 통해 저수지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평화동 주공아파트 인근 '지시제'가 이같은 저수지 활용을 고민해온 이들 단체에게는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지시제는 당초 도시 계획에 따라 매립 위기를 맞았으나 전주시와 개발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쉼터로서 생태 호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시제는 또 학교와 연계해 생태학습 코스 개발 등 청소년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전주의제21은 이같은 저수지 활용 방안에 따라 이를 전담할 환경분과 위원과 양서류나 파충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또 평화동 '지시제'의 생태호수 가꾸기 모임과 '꽃다지 수생식물 연구회'등도 포함시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소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현재 매립이 예정된 만수제와 옥녀제, 그리고 용도폐지됐으나 매립이 안된 서은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농업경영사업소 등으로 부터 '자연학습장으로 보존하면 좋은 저수지'로 손꼽힌 전주공업대학교 입구의 '신용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뒷편 '오송제', 효자동 공원묘지 앞쪽 '황학제'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2004.5.5 [전북일보] 안태성 기자

## 8. 강의 수료자들의 추후 활동계획

○ 지역 시민들을 위한 환경 지킴이 활동 지속

시민행동21은 올해에도 전주천, 전주수목원 및 모악산, 기린봉, 건지산, 완산칠봉 등에서 인근 주민들과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숲과 들꽃, 하천에 대한 생태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쳐 갈 것이다.

특히, 이번 지도자 중 아중초등학교 교사들은 기린봉에 인접해 있는데, 이번에 만든 '기린봉의 숲속친구들'이란 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숲 체험교육을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 인근 산과 습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 해설 교육 프로그램 마련

2004년 기린봉을 대상으로 한 숲해설 교육프로그램 제작 성과를 이어, 전주시 인근의 건지산, 황방산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학교 및 주민들과 함께 숲해설, 습지 보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을 지역 환경보전의 주체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며, 이 점을 고려한 지역 선정과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활동

부실하고,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지켜야 할 환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훼손이 예상되는 곳(예. 완주군 천등산 활골 일대의 댐 예정지)을 정해, 지속적인 생태조사를 할 계획이며, 이 작업에 지도자 교육 이수자를 참여시켜, 지속적인 교육 및 환경보전 지킴이로 참여시킬 계획이다.